

경 상 북 도

# 청 단 놀 음

제22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 
1981. 10. 22 ~ 24. 인천공설운동장



예 천 군

## 人事말씀



天高馬肥의 豐饒로운 季節, 文化의 달을 맞아, 靑丹놀음이 第22回 全國 民俗藝術競演大會에 慶北 代表로 出戰하게 된 것을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.

文化의 고장 醴泉郡은 지난 79年度 第20回 全國大會에 通明農謠가 出演하여 綜合優勝인 大統領賞을 受賞한 바 있으며, 今年에는 靑丹놀음을 調査發掘하여 全國에 紹介하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으

로 여기는 바입니다.

이번에 紹介되는 靑丹놀음은 아직까지 紹介되지 않은 本 郡의 民俗놀이중의 하나로 이 地方에서 오랫동안 傳承되어 오던 固有의 假面 탈춤입니다.

이 탈춤을 놀므로써 災難을 진압했다는 傳說이 담긴 놀이인데 몇몇 뜻있는 分들의 執念어린 努力으로 復元되었고 오늘 그 햇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.

이러한 靑丹놀음을 全國에 紹介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當局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13萬 郡民과 함께 民俗祭典의 日益 發展을 祈願하는 바입니다.

1981. 10.

醴泉郡守 金 奭 鍾

## 1. 靑丹놀음의 由來

醴泉邑은 옛부터 慶北 北部地方의 각종 產物이 집산하던 商業의 中心地로서, 장날마다 商人과 閑良들이 흥청거리던 고을로 이름나 있다.

靑丹놀음은 언제부터 놀아왔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1935년의 놀음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어온 假面默劇이다.

옛날 먼 남쪽지방의 한 富豪가 잃어버린 家族을 찾기 위하여 춤에 능한 사람들을 모아 가면을 만들어 「청단」이란 놀음을 벌이며 방방곡곡을 누볐다. 醴泉邑에서 놀았을 때 마침내 관중 속에서 가족을 찾아 돌아갔다.

그 후부터 어찌된 일인지 예천읍에서는 자주 불이 나서 고통거리였다.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그 원인을 진압하고자 한량들로 하여금 그 광대놀음을 재연케 했는데 그때부터 예천읍에서는 씻은듯이 불이 나지 않고, 따라서 歲歲年年 이 靑丹놀음을 놀아 왔다고 한다.

靑丹놀음은 해마다 초여름이나 팔월 한가위 때에 漢川 백사장에서 휘장을 치고 즐겁게 놀았는데 멀리 가까이서 물려온 관중들로 人山人海를 이루었다 한다.

## 2. 靑丹놀음의 內容

농악군의 외마치, 세마치 및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추어지는 춤은 주로 덧배기가 그 중심을 이루고, 박으로 만든 탈이 19개, 키타이 4개이며, 무동을 타는 어린이 외에 광대의 총 수가 25명, 농악 악사가 5명이다.



### 첫째마당 : 광대놀음

광대 2명이 북을 치며 춤을 춘다. 서로 자리를 바꾸어 가며 흥겹게 논다.

이 마당은 전 마당 중에서 서막에 속하며 관중을 유인하거나 관중의 흥을 돋구는 마당이다.

(이번 대회에서는 시간 관계로 생략한다)

### 둘째마당 : 주지놀이

2명의 주지광대가 저마다 주지관을 들고 서로 부채질을 하고 또 관중 앞으로 다가 가서 부채질을 하면서 춤을 춘다.

이 마당은 잡귀와 액운을 쫓아내는 벽사진경의 뜻이 숨어 있다.



주지놀이 ▶

### 셋째마당 : 행의놀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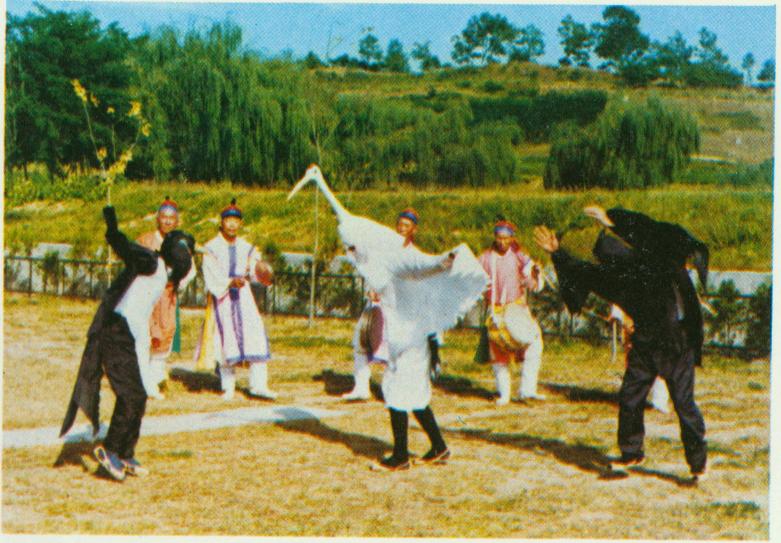
양반과 사대부가 즐겁게 춤추며 논다. 쪽박광대가 등장하여 양반과 사대부를 번갈아가며 유혹한다.

이 마당은 봉건사회 상층 계급의 허울좋은 위선을 풍자한 뜻으로 생각된다.



◀ 행의놀이

학 춤 ▶



### 넷째마당 : 학 춤

학이 나와 춤을 추면 박쥐와 제비가 차례로 나와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. 학과 제비는 익조로서 옛날부터 사랑을 받아왔고, 박쥐도 예천지방에서는 특별한 애호를 받는 조류이다.

이 마당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길운을 상징하는 놀음이다.



◀ 지연광대놀이

### 다섯째마당 : 지연 광대놀이

키로 만든 커다란 탈을 쓴 4명의 지연광대가 나와서 긴 수염을 휘날리며 춤을 춘다. 이 마당은 춘·하·추·동과 동·서·남·북을 상징하며 마을의 안녕 질서와 풍농을 기원하는 놀음이다.



### 여섯째마당 : 파계승놀음

쪽박광대가 마당을 쓸고 있을때 탁발승이 지나다가 이를 목격하고, 쪽박광대의 유혹에 빠져 놀아 나는데 초랭이가 나와 호통을 친다.

이 마당은 파계승에 대한 풍자로 조선시대의 배불숭유 사상의 잔영이라 생각된다.

### 일곱째마당 : 바라춤

여승 2명이 고깔을 쓰고 바라를 들고 동·서·남·북으로 다니면서 춤을 춘다.

마을 사람들은 인간 세계의 제일 운명인 질병을 없애고, 장수를 비는 춤이라 한다.

(이번 대회에서는 시간 관계로 생략한다)



무동놀음 ▶

### 여덟째마당 : 무 동

모자광대와 두동무 4조, 삼동무 2조가 즐겁게 춤추며 논다. 농작물의 속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춤이며 남녀노소 부귀빈천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의 대동단결을 뜻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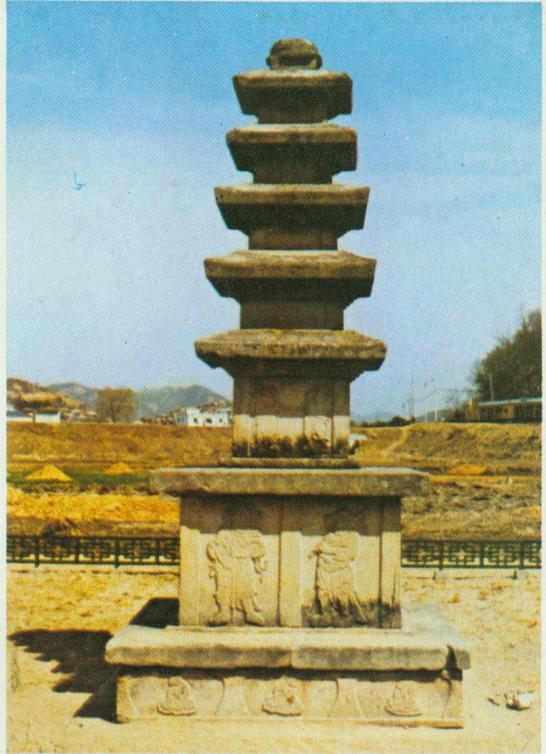
## 출 연 자 명 단

배역	성명	년령	비고	배역	성명	년령	비고
기잡이	최규환	60		쪽박광대	안영의	53	
상쇠	윤남로	61		초랭이	윤석현	42	
중쇠	김세기	59		모자광대	채복기	56	
징	장대식	65		여승	강수석	63	
북	김학훈	62		"	최재덕	53	
장고	전우섭	46		무동	황병운	32	
광대	윤석현	42		"	정재국	43	
"	안병순	42		"	안순모	33	
주지	안유호	55		"	장수임	30	
"	윤영중	51		"	장재석	44	
양반	윤중학	61		"	박진서	37	
사대부	채복기	56		"	박창환	15	
학	이종호	48		"	장병호	14	
박취	안용충	46		"	최종일	11	
제비	윤석기	47		"	최중아	8	
지연광대	김명수	55		"	남화숙	12	
"	박진서	37		"	안혜숙	12	
"	강원희	34		"	장병화	11	
"	장수임	30		"	정은정	9	
중광대	김박년	45					

지도교수 : 성병희    안동대학 교수  
 "        권영철    효성여자대학교 교수

전승자 : 장정섭    예천읍 백전동  
 총지도 : 최원한    예천문화원 원장  
 제보자 : 강원희    예천동부국민학교 교사

보물 제53호 개심사지 5층석탑  
(예천읍 남본동 소재)



보물 제684호 용문사 윤장대  
(용문면 내지동 용문사 소장)